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마태복음

예수의 족보

(눅 3:23-38)

-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다.
5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았다.
6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다.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아를 낳았다.
9 웃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았다.
11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다.)
12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 **1:11 여고냐** 여호야קים의 또 다른 이름. 실제로 요시아는 여고냐의 할아버지였고, 여고냐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다 (왕하 23:28-24:20).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았다.

16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17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십사 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잡혀 갈 때까지가 십사 대, 그리고 바빌론으로 잡혀 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까지가 십사 대이다.

예수의 탄생

(눅 2:1-7)

18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본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19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 께서 주신 아기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22 이 일은 모두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23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24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킨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동쪽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다

2 예수께서는 헤롯왕[§] 때에,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뒤에 동쪽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2 그들은 “유대 사람의 새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3 유대 사람의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왕은 몹시 당황하였다. 그와 더불어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4 헤롯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다. 5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6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 1:20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1:21 예수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

[¶] 1:23 처녀가...할 것이다 사 7:14.

[§] 2:1 헤롯 헤롯대왕을 가리킨다. 그는 기원전 40-4년 동안 유대 지방의 영주였다.

^{**} 2:1 박사들 또는 ‘현자들’ ‘점성가들’. 아마도 미래를 점치기 위해 별들을 관찰하던 이방 종교의 학자들을 뜻할 것이다.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

7 그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다. 그는 그들이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다. 8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 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9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때 마침 동쪽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 별은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10 박사들은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고 몹시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11 박사들은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을 풀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 ‡ ‡ 을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다.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일러 줄 때까지 이집트에 있어라.”

14 요셉은 서둘러 일어나서 그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하였다. 15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 ¶ 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다

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둘레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17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으며 크게 슬퍼하는 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그들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누구의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는구나!” § §

요셉과 마리아, 이집트에서 돌아오다

19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21 요셉이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22 그러나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 † 2:6 미 5:2.
 ‡ ‡ 2:11 유향과 몰약 값비싼 향료.
 ¶ ¶ 2:15 내가 이집트에서...불러냈다 호 11:1.
 § § 2:18 렘 31:15.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요셉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²³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 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준비하다

(마 1:1-8; 눅 3:1-9, 15-17; 요 1:19-28)

3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²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였다. ³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⁴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⁵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⁶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⁷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⁸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⁹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¹⁰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¹¹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¹²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다

(막 1:9-11; 눅 3:21-22)

¹³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오셨다. ¹⁴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¹⁵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2:22 갈릴리** 유대의 북쪽에 있는 지역.

†**2:23 나사렛** 갈릴리의 저지대에 있는 한적한 골짜기에 있고, 그 골짜기는 에스드래론 평야에서 약간 북쪽에 있다.

‡**2:23 그를...부를 것이다**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구절이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 마태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 사람’인 삼손(삿 13:5-7)과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을 비교하여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3:1 세례자 요한**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과는 다른 사람.

§**3:3** 사 40:3.

****3:5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3:12 키** 곡식 따위를 까부르는 그릇.

‡‡**3:13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16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앉는 것을 보셨다. 17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다

(막 1:12-13; 눅 4:1-13)

4 그 뒤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악마의 시험을 받게 되셨다. 2 예수께서는 밤낮 사십 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다. 3 그러자 악마 4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4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 5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6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도 쓰여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너를 돌보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 *

7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

8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예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 주며 말하였다. 9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나를 받들어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10 그러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 네 하나님을 받들고, 그분만을 섬겨라.’” ‡

11 그러자 악마는 예수께로부터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모셨다.

갈릴리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다

(막 1:14-15; 눅 4:14-15)

12 요한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었다. 14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5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 4의 갈릴리!

4 4:3 악마 또는 ‘시험하는 자’.

§ 4:4 신 8:3.

* 4:6 시 91:11-12.

† 4:7 신 6:16.

‡ 4:10 신 6:13.

4 4:15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믿고, 다른 민족은(이방인)죄인으로 여겼다.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17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몇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다

(막 1:16-20; 눅 5:1-11)

18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20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도 부르셨다. 22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시다

(눅 6:17-19)

23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또한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24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간질병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눅 6:20-23)

5 예수께서 무리 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2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 받을 것이다.

5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을 것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 4:16 사 9:1-2.

** 5:5 그들이...받을 것이다 시 37:11.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10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험뜯는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12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막 9:50; 4:21 눅 14:34-35; 8:16)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15 것처럼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16 이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와 구약성경

17 내가 율법 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 율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의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화내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21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른 말을 들어 알고 있다. 22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러가서 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니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네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25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26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쪼까지 죄 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 5:10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 ‡ 5:21 살인하지...것이다 출 20:13; 신 5:17.

¶ ¶ 5:22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형제나 자매에게 ‘라가’ 라고 말하는”. 아랍어 ‘라가’ 는 멸시를 나타내는 욕.

성적 죄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27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29 그러나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 버려라. 네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 버려라. 네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마 19:9; 막 10:11-12; 눅 16:18)

31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라고 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 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맹세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33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주께 한 맹세를 다 지켜라.’[†]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35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인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36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37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원수 갚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눅 6:29-30)

38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 대 주어라. 40 누가 너를 고발하여 네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겹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 리를 같이 가 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눅 6:27-28, 32-36)

43 ‘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 5:27 간음하지 말아라 출 20:14; 신 5:18.

* 5:31 누구든지...써 주어라 신 24:1.

† 5:33 거짓...다 지켜라 레 19:12; 민 30:2; 신 23:21.

‡ 5:38 눈에는...이 출 21:24; 레 24:20; 신 19:21.

¶ 5:43 네 이웃은...미워하라 레 19:18.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47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48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듣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6 “너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옳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아라. 5 위선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남을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4 그렇게 네 자선행위를 비밀로 해 두어라. 그러면 은밀하게 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눅 11:2-4)

5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7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튼소리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8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9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10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1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14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금식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16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일부러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얼굴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하여라. 18 그렇게 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

§ 6:2 떠들썩하게...말아라 글자 그대로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6:13 악한 자에게서 또는 ‘악에서’. 어떤 그리스어 번역에는 이 부분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덧붙여 있다.

채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서만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일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돈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소중하다

(눅 12:33-34; 11:34-36; 16:13)

19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려 하지 말아라. 이 땅의 재물은 벌레 먹고 녹이 슬어 없어지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20 그러니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재물이 벌레 먹거나 녹이 슬어 없어지지도 않으며,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을 밝게 해 주는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23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네 안의 빛이 꺼지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24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눅 12:22-34)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곳간에 채워 넣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늘일 수 있느냐?

28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렸어도 이 들꽃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30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오늘은 살아 있어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31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32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34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늘의 걱정거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남을 판단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눅 6:37-38, 41-42)

7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3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4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는 ‘네 눈에 들어

† 6:29 솔로몬 다윗의 아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있는 티끌을 빼 주겠다.’ 고 하느냐? ⁵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밝아져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⁶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를 해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구하라

(눅 11:9-13)

⁷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⁸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⁹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¹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¹¹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매우 중요한 규칙

¹²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눅 13:24)

¹³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¹⁴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의 됴됨이이다

(눅 6:43-44; 13:25-27)

¹⁵ 거짓 예언자 † 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순한 양의 털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¹⁶ 너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¹⁷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¹⁸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¹⁹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에 던져 버린다. ²⁰ 이렇듯 나무나 사람이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²¹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²²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²³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 † **7:15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눅 6:47-49)

24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26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29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피부병 환자를 고쳐 주시다

(막 1:40-45; 눅 5:12-16)

8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2 그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래, 너를 고쳐 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 4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 주시다

(눅 7:1-10; 요 4:43-54)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도와 달라고 청하였다. 6 그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의 병을 고쳐 주겠다.”

8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9 제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압니다.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밑에 있는 군인은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제 종에게 ‘이것을 해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10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며,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토록 깊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11 많은 사람이 동서 여러 곳에서 올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12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 받았던 백성들은 캄캄한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백인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백인대장의 종이 나왔다.

¶ **8:2 나병** 악성 피부병.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킬 수 있다.

§ **8:4 제사장에게...제물을 드려라**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예물을 바쳐야 했다 (레 14:2-32).

* **8:5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 **8:5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8:13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다

(막 1:29-34; 눅 4:38-41)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부인에게서 떠났다. 그러자 부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시중을 듣기 시작하였다.

16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귀신들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도 모두 낫게 해 주셨다. 17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

예수를 따르는 것

(눅 9:57-62)

18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둘러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19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20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에게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동지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에게는 머리를 돌 곳조차 없구나.”

21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지금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폭풍을 잠재우시다

(막 4:35-41; 눅 8:22-25)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배에 올랐다. 24 갑자기 호수에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25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 그분을 깨우며 말하였다.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27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람과 파도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다

(막 5:1-20; 눅 8:26-39)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였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29 그들은 예수께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해진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벌하러 오셨습니까?”

30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31 귀신들이 예수께 빌었다. “우리를 이 사람들의 몸에서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의 몸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 8:17 사 53:4.

[§] 8:28 가다라 지방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

32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가거라!”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몸속으로 들어갔다.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 달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마을로 달아났다.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34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 고장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시다

(막 2:1-12; 눅 5:17-26)

9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2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이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3 그때 율법 선생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4 예수께서는 율법 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5 ‘네 죄가 용서되었다’ 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 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6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7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8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태(레위)를 부르시다

(막 2:13-17; 눅 5:27-32)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1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13 그러니 가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신 예수

(막 2:18-22; 눅 5:33-39)

14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 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9:9 세관 세금을 거두는 관청.

††9:10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9:10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로나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9:13 내가...자비이다 호 6:6.

16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어 깎는 사람은 없다. 새로 댄 천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 부대도 못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죽은 소녀를 살리고, 병든 여인을 고치시다

(막 5:21-43; 눅 8:40-56)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20 마침 그때 열두 해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다가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21 그 여자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23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24 “물러가라!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25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26 이 소문이 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다

27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30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31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32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 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33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3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35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36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 있었기

§ 9:18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장소인 회당의 책임자.

*9:27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때문이다. ³⁷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³⁸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 밭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 달라고 기도하여라.”

사도들을 전도여행에 보내시다

(막 3:13-19; 6:7-13; 눅 6:12-16; 9:1-6)

10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아픔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² 열두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³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무원[†]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⁴ 열심쟁이[‡] 시몬과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⁵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방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도 가지 말아라. ⁶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찾아가거라. ⁷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라. ⁸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 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 주어라. 나병^{**} 환자를 낫게 해 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거저 준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거저 도와주어라. ⁹ 돈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¹⁰ 여행 가방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¹¹ 너희가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라. ¹²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이 댁에 평화가 깃들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인사하고 들어가거라. ¹³ 그 집 사람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¹⁴ 어디서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¹⁵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보다는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고난에 대해 경고하시다

(막 13:9-13; 눅 21:12-17)

¹⁶ 조심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떼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여라. ¹⁷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길 것이고, 자기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¹⁸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 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에 관하여 증언할 것이다. ¹⁹ 그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 **10:3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10:4 열심쟁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가나니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마도 ‘질투심이 많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온 것 같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특별히 열심이었던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기원후 67-68년 겨울까지는 ‘열심당’ 이라고 알려진 단체가 조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열심당원’ 이란 이름은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여 싸운 유대 사람의 단체에 속했던 사람에게 훨씬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 **10:5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믿고, 다른 민족은(이방인) 죄인으로 여겼다.

[§] **10:5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10:8 나병** 악성 피부병.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킬 수 있다.

할 말을 받게 될 것이다. ²⁰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²¹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거슬러 들고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²²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²³ 어떤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 ^{† †} 하면 다른 마을로 가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도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²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다. ²⁵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은 자기 주인과 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 ^{‡ ‡} 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식구들이야 얼마나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겠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눅 12:2-7)

²⁶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어진 것이라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²⁷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조용히 이르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크게 외쳐라. ²⁸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라. ²⁹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³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세시는 분이다. ³¹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다.

너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눅 12:8-9)

³²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³³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겠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눅 12:51-53; 14:26-27)

³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³⁵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게 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³⁶ ‘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 ¶}

³⁷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³⁸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 †} **10:23 박해** 그리스도의 적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히거나 괴롭히는 것.

^{‡ ‡} **10:25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에서는 ‘악령’ ‘귀신’ ‘마귀’ 의 뜻으로 쓰인다.

^{¶ ¶} **10:36** 미 7:6.

따르려는 사람도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³⁹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막 9:41)

⁴⁰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⁴¹ 예언자를 보고,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보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⁴²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는 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여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세례자 요한

(눅 7:18-35)

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지시하신 뒤에 길을 떠나,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²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여쭙게 하였다. ³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어라. ⁵ 눈 먼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나병 ⁵ ⁵에 걸린 사람이 깨끗이 나고, 귀머슴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주어라. ⁶ 내가 하는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⁷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⁸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⁹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갔더냐? 그렇다.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희가 본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¹⁰ 요한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¹¹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¹²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 왔다.[‡] 그리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힘으로 빼앗아 차지한다. ¹³ 요한이 오기까지 모든 예언서들과 모세의 율법서는 지금의 이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쓰였다. ¹⁴ 너희가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믿는다면, 요한이 이미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 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¹⁵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 **11:5 나병** 악성 피부병.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킬 수 있다.

* **11:7 갈대** 예수께서는 요한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 **11:10** 말 3:1.

‡ **11:12 폭행을 당해 왔다** 또는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 **11:14 엘리야** 말 4:5-6을 볼 것.

16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소리쳐 부른다. 17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더구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더구나!’

18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무원[§]과 죄인^{**}들과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하는 일로써 그 율음이 증명된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다

(눅 10:13-15)

20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보이신 마을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크게 꾸짖으셨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라신^{††}아,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새다^{‡‡}아,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죄를 뉘우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썼을 것이다. § § 2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성싶으냐?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다

(눅 10:21-22)

25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 주셨습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27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 주기로 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28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29 내 멍에를 받아 짊어져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니, 너희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30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볍다.”

§ 11:19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11:19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이나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 11:21 고라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마을.

‡‡ 11:21 벳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마을.

¶¶ 11:21 두로와 시돈 매우 악한 사람들이 살던 레바논의 성읍들.

§ § 11:21 베옷을...썼을 것이다 사람들이 때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썼다.

* 11:23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막 2:23-28; 눅 6:1-5)

12 그 무렵의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하였다. ²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³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되물으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한 일에 대해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은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제사장만이 그 빵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⁵ 너희는 또 율법에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안식일에 안식일 법을 어겨도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⁶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⁷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한 남자를 고치시다

(막 3:1-6; 눅 6:6-11)

⁹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¹⁰ 거기에는 한 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향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¹¹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양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¹²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¹³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성하게 되었다. ¹⁴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¹⁵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 주셨다. ¹⁶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¹⁷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¹⁸ “보아라! 내가 뽑은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선포하리라.

¹⁹ 그는 말다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²⁰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기까지,
꺾어진 갈대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며

[†] 12:3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12:7 내가...아니다 호 6:6.

꺼져 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²¹ 모든 민족이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막 3:20-30; 눅 11:14-23; 12:10)

²²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는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못 하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시자, 그가 말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²³ 그러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⁵이란 말인가?”

²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이다!”

²⁵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고을이나 집안도 갈라져 싸우면 오래 갈 수 없다.²⁶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갈라진 것이다. 그래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버텨 낼 수 있겠느냐?²⁷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느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²⁸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²⁹ 또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야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³⁰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³¹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독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 받을 수 없다.³²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를 알 수 있다

(눅 6:43-45)

³³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³⁴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³⁵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³⁶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함부로 지껄인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³⁷ 너는 네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 받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막 8:11-12; 눅 11:29-32)

³⁸ 그때 율법 선생과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 12:21 사 42:1-4.

⁵ 12:23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12:24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성경에서는 ‘악령’ ‘귀신’ ‘마귀’의 뜻으로 쓰인다.

39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40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 속에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있게 될 것이다. 41 심판 날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42 심판 날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 도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먼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악하다

(눅 11:24-26)

43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면, 쉼 곳을 찾아 물 없는 광야를 헤맨다. 그러다가 쉼 곳을 찾지 못하면 44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옛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악한 영은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 있지 않으며 집이 깨끗이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45 그러면 악한 영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그 집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된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이다

(막 3:31-35; 눅 8:19-21)

46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47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냐?” 49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50 그렇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씨 뿌리는 비유

(막 4:1-9; 눅 8:4-8)

13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2 많은 사람이 예수의 돌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가운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 버렸다. 5 어떤 씨는 흩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흩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았다. 6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곧 말라 버렸다. 7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자라 올라 숨을 막아 버렸다. 8 어떤 씨는

†† 12:40 요나가...것처럼 온 1:11-17을 볼 것.

‡‡ 12:41 니스웨 사람들은...때문이다 온 3:5-9을 볼 것.

¶¶ 12:41 이가 또는 ‘것이’.

§§ 12:42 남쪽 나라의 여왕 시바의 여왕을 가리킨다.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왔었다(왕상 10:1-13).

* 12:42 이가 또는 ‘것이’.

† 13:3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의 백 배, 육십 배 또는 삼십 배의 열매를 맺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까닭

(막 4:10-12; 눅 8:9-10)

10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쭙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12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14 그러니 이사가야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 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 줄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풀어 말씀해 주시다

(막 4:13-20; 눅 8:11-15)

18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라. 19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냅킨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21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22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23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 13:15 사 6:9-10.

¶ 13:19 악한 자 또는 ‘악마’.

§ 13:21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밀과 가라지의 비유

24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주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고 가 버렸다. 26 그 뒤에 밀이 자라 이삭이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27 그래서 밭주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28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원수들이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다 뽑아 버릴까요?’

29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된다. 30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태워 버려라. 그리고 나서 밀을 거두어 내 곳간에 넣어라.’ 라고 이를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비유들

(막 4:30-34; 눅 13:18-21)

31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32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3말에 누룩¶¶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34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리라.

나는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말하리라.” § §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풀이해 주시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비유에서,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38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백성을 말한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40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41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죄 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모두 그의 나라에서 뽑아 낼 것이다. 42 천사들은 이들을

** 13:24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13:25 가라지 잡초 가운데 하나. 밀과 비슷하게 생겨 구별하기 어렵다.

‡‡ 13:31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 13:33 누룩 술을 빚거나 가루반죽을 부풀게 할 때 넣는 효소.

§ § 13:35 시 78:2.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⁴³ 한편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보물과 진주의 비유

⁴⁴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산다.

⁴⁵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⁴⁶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그물의 비유

⁴⁷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 올리는 것과 같다. ⁴⁸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 버린다. ⁴⁹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럴 것이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 낼 것이다. ⁵⁰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⁵¹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들었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⁵²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곳곳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고향으로 가시다

(막 6:1-6; 눅 4:16-30)

⁵³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⁵⁴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었을까? ⁵⁵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⁵⁶ 그리고 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⁵⁷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⁵⁸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 주지 않으셨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다

(막 6:14-29; 눅 9:7-9)

14 그때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² 헤롯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³ 헤롯은 오래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⁴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여러 번 말하였기 때문이다. ⁵ 그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13:55 목수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가리킨다.

† 14:1 헤롯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영주였다.

6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 주었다. 7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8 그러자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이 자리로 가져다주세요.” 9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여러 손님들 앞에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명령하였다. 10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 오게 하였다. 11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주검을 거두어다가 묻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다

(막 6:30-44; 눅 9:10-17; 요 6:1-14)

13 예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1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해 주셨다.

15 저녁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7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빵과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19 그리고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긴 것을 모아 담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21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오천 명이나 되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막 6:45-52; 요 6:16-21)

22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르셨다. 23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난 뒤에 조용히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곳에 혼자 계셨다. 24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물에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거슬러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맞아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26 예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27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정말로 선생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 다가갔다. 30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자 그는 물 속으로 빠져들면서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32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33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다

(막 6:53-56)

34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닿았다. 35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가까운 여러 마을에 두루 알렸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36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규칙

(막 7:1-23)

15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²“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³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⁴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도 하셨다. ⁵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⁶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버렸다. ⁷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⁸‘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⁹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

¹⁰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¹¹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¹²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¹³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¹⁴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게 된다.”

¹⁵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 14:34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

[‡] 15:4 네...공경하라 출 20:12.

[§] 15:4 누구든지...것이다 신 5:16.

** 15:7 이사야 기원전 742-701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15:9 사 29:13.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17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18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짓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헐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20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여인을 도와주시다

(막 7:24-30)

21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2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 † † 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23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줄곧 소리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사람들 ¶ ¶ 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2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2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참 장하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다

29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30 많은 사람이 무리 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 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말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 § 을 찬양하였다

사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다

(막 8:1-10)

32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33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 † **15:22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 ¶ **15:24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양들’ 임.

§ § **15:31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유대 사람의 하나님.

³⁵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였다. ³⁶ 그리고 나서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³⁷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 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³⁸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천 명이나 되었다. ³⁹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험하다

(막 8:11-13; 눅 12:54-56)

16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²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해질 무렵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하고 말한다. ³ 또 동틀 때에는 ‘하늘이 붉고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는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는구나. 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다

(막 8:14-21)

⁵ 예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⁶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⁷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⁸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⁹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여러 광주리에 모아 담지 않았느냐? ¹⁰ 또 빵 일곱 개로 사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과, 그러고도 남은 것을 주워 모은 것이 여러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¹¹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의 뜻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¹²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에 쓰이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다

(막 8:27-30; 눅 9:18-21)

¹³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15:39 마가단 지역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다.

† 16:4 요나의 표적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것이,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을 지내신 것과 같다(은).

‡ 16:6 바리새파 유대 사람의 율법과 전통을 가장 충실히 지킨다고 믿었던 유대교의 한 종파.

¶ 16:6 누룩 술을 빚거나 가루반죽을 부풀게 할 때 넣는 효소.

§ 16:13 빌립보의 가이사라 갈릴리 호수와 요단 강이 흘러나오는 지역에 있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예레미야††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7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네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18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나는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20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막 8:31-9:1; 눅 9:22-27)

21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으셔야 할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2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23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4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의 어떤 것도 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27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올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릴 것이다. 28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

(막 9:2-13; 눅 9:28-36)

17 옛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2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 예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변하였다. 3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16:14 엘리야 기원전 850년 즈음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

†† 16:14 예레미야 기원전 600년 즈음에 살았던 예언자.

‡‡ 16:18 베드로 이 이름은 ‘바위’ 라는 뜻.

¶¶ 16:18 바위 베드로 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

§§ 16:18 죽음의 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저승의 문’.

* 16:21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

† 17:3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4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5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6 예수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8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는 말은 맞다. 12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는 벌써 왔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3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한 소년의 병을 낫게 하시다

(막 9:14-29; 눅 9:37-43)

14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15 그리고는 말하였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이나 물 속에 곧잘 뛰어든곤 합니다. 16 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1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18 예수께서 아이에게 들어 있는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의 병이 나았다.

19 예수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악령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2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21**

‡ 17:4 초막 풀과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간단한 집.

¶ 17:15 간질병 때로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하는 병.

§ 17:20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 17:21 21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런 종류의 악령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다.’ 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다.

자신이 죽으실 것에 관해 말씀하시다

(막 9:30-32; 눅 9:43-45)

²²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²³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세금 내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다

²⁴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냅니까?”²⁵ “예, 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어둘 때, 그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자기 자녀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냐?”

²⁶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²⁷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 보아라. 거기에 은돈 한 닢^{¶¶}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의 성전세로 주어라.”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막 9:33-37; 눅 9:46-48)

18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²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³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질 못할 것이다.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⁵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막 9:42-48; 눅 17:1-2)

⁶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⁷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⁸ 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 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낫다.⁹ 그러니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낫다.

^{††} **17:24 성전세** 모든 유대 남자들이 성전 관리를 위해 해마다 3월에 내던 두 드라크마의 세금.

^{‡‡} **17:25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

^{¶¶} **17:27 은돈 한 닢** 그리스어로는 ‘스타테르’. 한 스타테르는 두 디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한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눅 15:3-7)

10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1 §

12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은 언덕에 그대로 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13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14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했을 때

(눅 17:3)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하나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그 사람이 네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17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무원*처럼 여겨라.

18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

19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용서에 관한 비유

21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여쭙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22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 용서해 주어라!”

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빛진 종들에게서 빛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 할 수 있다. 24 임금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자, 일만 달란트§를 빛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 왔다.

§ § 18:11 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라는 구절이 덧붙여 있다.

* 18:17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18:18 너희가 무엇이든...용서하실 것이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18:22 일흔일곱 번이라도 또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창 4:24).

¶ 18:23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18:24 달란트 한 달란트가 일곱 한 사람의 15년 품삯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25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26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을 다 갚겠습니다.’²⁷ 임금은 종이 가여워서 그가 진 빚을 면제해 주고, 그를 풀어 주었다.

28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의 멍살을 잡고 말하였다. ‘네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29 그러자 멍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30 그러나 첫번째 종은 그 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³¹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32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내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³³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³⁴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³⁵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막 10:1-12)

1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²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³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를 떠 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가 닿기만 하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씀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쳐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⁶ 그러므로 이제 두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 주셨으니, 아무도 그 둘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⁷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⁸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⁹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다. 남자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했을 때뿐이다.”

¹⁰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것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18:28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19:4 성경 구약성경.

‡‡19:4 남자와...만드셨다 창 1:27; 5:2.

¶¶19:5 그러므로...될 것이다 창 2:24.

§§19:7 모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인물. 그가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책을 썼다고 여겨진다.

*19:9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서약을 깨는 것을 말한다.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12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도록 하여라.”

아이들을 반기시다

(막 10:13-16; 눅 18:15-17)

13 그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 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1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15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어느 부자가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다

(막 10:17-31; 눅 18:18-30)

16 그런데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켜라.”

18 그 사람이 여쭙었다.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20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라.”[§] 하는 계명들이다.”

20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물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네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4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예수께 여쭙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26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27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선생님을 좇아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 19:17 계명 여기서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을 뜻한다.

[‡] 19:18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을 말한다.

[¶] 19:19 네...공경하여라 출 20:12-16; 신 5:16-20.

[§] 19:19 네가...사랑하여라 레 19:18.

2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29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논밭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들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30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쫓겨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 ‡

포도밭 일꾼 이야기

20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밭 주인에게 비길 수 있다. 이 포도밭 주인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2 그는 일꾼들에게 그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밭주인은 일꾼들을 밭으로 내보냈다.

3 아침 아홉 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에 나갔다. 그는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4 밭주인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5 그리하여 사람들은 밭으로 일하러 갔다.

밭주인은 열두 시와 세 시쯤에 또 장터로 나갔다. 이번에도 그는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자기 밭의 일꾼으로 데려왔다. 6 저녁 다섯 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로 다시 나갔다. 그는 장터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밭주인은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었다.

7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밭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8 날이 저물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렀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일한 삯을 주게. 내가 가장 나중에 부른 일꾼들부터 삯을 주게. 그리고 맨 먼저 부른 일꾼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삯을 주게.’

9 저녁 다섯 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았다.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10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다른 일꾼들보다 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각각 한 데나리온만 돌아갔다. 11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뒤에 밭주인에게 가서 따졌다. 12 그들은 밭주인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일하러 와서 겨우 한 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종일 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습시다.’

13 그러나 밭주인은 이들 가운데 한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네. 자네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내 밭에 와서 일한 것이 아닌가? 14 그러니 자네 품삯이나 받아 가게. 나는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자네와 똑같은 품삯을 주겠네. 15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내게 없단 말인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서 샐이 나는가?’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다

(막 10:32-34; 눅 18:31-34)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18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의 손에 넘어서

** 19:28 이스라엘 먼저 유대 나라를 뜻하나,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

†† 19:28 열두 가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룬 가문.

‡ ‡ 19:30 가장 높은... 많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 20:2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¹⁹ 그리고 이방 사람 ^{§ §}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어머니가 예수께 특혜를 요청하다

(막 10:35-45)

²⁰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한 뒤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²¹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여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시면, 제 두 아들을 각각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²²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²³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실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할 분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²⁴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화를 냈다. ²⁵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그들의 고관들은 권력을 휘두른다. ²⁶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²⁷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²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 하기 위해서 왔다.”

눈먼 사람 둘을 고치시다

(막 10:46-52; 눅 18:35-43)

²⁹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때에 큰 무리가 예수의 뒤를 따랐다. ³⁰ 그 길에 눈먼 사람 둘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³¹ 무리가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 둘은 계속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³²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³³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여,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³⁴ 예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 § 20:19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 20:22 내가 마셔야...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곤 하셨다.

† 20:28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20:29 여리고 요단강 남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

¶ 20:30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왕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21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이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셨다. ² 예수께서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저 앞에 보이는 마을로 가거라. 마을에 들어서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 옆에는 새끼도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³ 혹시 너희에게 나귀들을 왜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주께서 이 나귀들을 쓰시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어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⁴ 이 일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려고 일어났다.

⁵ 시온††성에 알려라.

‘보아라, 너희 임금께서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⁶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 ⁷ 그들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⁸ 큰 무리가 겹옷을 벗어 길에 폄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다. ⁹ 예수를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아들^{¶¶} 을 찬양하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¹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온통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¹¹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대답하였다.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

(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¹²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다.

§ 21:1 올리브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21:1 벳바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을.

†† 21:5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 21:5 눅 9:9.

¶¶ 21:9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 21:9 찬양하라 글자 그대로는 ‘호산나!’, ‘호산나’ 는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21:9 시 118:26.

† 21:9 찬양하라 글자 그대로는 ‘호산나!’, ‘호산나’ 는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13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14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이들을 낫게 해 주셨다. 15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도 보았다. 아이들은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라!” 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화가 났다.

16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듣는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17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날 밤을 묵으셨다.

예수께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시다

(막 11:12-14, 20-24)

18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다. 예수께서는 배가 매우 고프셨다. 19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쪽으로 가셨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는 잎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죽었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께 여쭙었다.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갑자기 말라죽을 수 있습니까?”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저 나무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희는 저 산에게 ‘산아,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막 11:27-33; 눅 20:1-8)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보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하나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25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그들은 예수의 물음을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는 ‘그러면 당신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오. 26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준 것이다.’ 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두렵소.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고 있으니 말이오.”

27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요한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오.”

‡ 21:13 내 집은...것이다 사 56:7.

¶ 21:13 도둑의 소굴 램 7:11.

§ 21:16 주께서...하리라 시편(그리스어 판) 8:2.

** 21:17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마을.

† † 21:25 요한 예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마 3:15).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두 아들의 비유

28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29 맏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들은 마음을 바꿔 포도밭으로 갔다.

30 그 다음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오늘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이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끝내 가지 않았다.

31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맏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무원[‡]이나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32 요한이 너희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보여주려고 왔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원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며 요한을 믿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막 12:1-12; 눅 20:9-19)

33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보아라. 어떤 땅 주인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밭에 포도를 심었다. 그리고 밭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는 농부 몇 사람에게 밭을 세로 내어 주고 여행을 떠났다. 34 포도를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다. 포도밭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 오게 하였다.

35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이고, 나머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다. 36 밭주인은 다른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처음 왔던 종들에게 한 것처럼 하였다. 37 그래서 밭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밭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8 그러나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밭은 그의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죽이면 이 밭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39 그래서 농부들은 밭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40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 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그 나쁜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이요. 그리고 추수 때에 자기 몫을 줄 농부들에게 밭을 세놓을 것이요.”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 **21:31 세무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하였다.

¶ **21:31 창녀** 몸 파는 여자.

§ **21:33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21:33 돌확** 돌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확.

† **21:42 성경** 구약성경.

모퉁이의 머릿돌 †이 되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놀랍기만 하구나.’ ¶

⁴³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⁴⁴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또한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

⁴⁵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들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⁴⁶ 그들은 예수를 잡아 가두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믿기 때문이었다.

잔치에 초대 받은 사람들에 관한 비유

(눅 14:15-24)

22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²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³ 임금은 종들을 시켜 혼인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⁴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여라. 가장 좋은 소와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⁵ 그러나 초대 받은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저마다 자기 일을 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다. ⁶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⁷ 임금은 매우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불태웠다.

⁸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다. 내가 앞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⁹ 그러니 너희는 너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청해 내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¹⁰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눈에 뜨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았다. 종들은 이 사람들을 잔치가 차려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대었다.

¹¹ 임금이 사람들을 둘러보러 들어왔다. 임금은 잔치 자리에 걸맞지 않은 차림새를 한 사람을 보았다. ¹²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나? 자네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¹³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밖으로 내던져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괴로워 이를 갈 것이다.’

¹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막 12:13-17; 눅 20:20-26)

¹⁵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틀린 말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트집잡아 예수를 잡기로 하였다. ¹⁶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 21:42 머릿돌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돌.

¶ 21:42 시 118:22-23.

§ 21:44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44절이 없음.

** 21:45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22:16 헤롯 당 당시 세력이 컸던 유대의 정치 단체.

가르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¹⁷ 선생님께 여쭙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¹⁸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어찌하여 내 속을 떠 보려고 하느냐? ¹⁹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 다오.” 그들은 예수께 데나리온 † ‡ 하나를 보여 드렸다. ²⁰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²¹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막 12:18-27; 눅 20:27-40)

²²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²³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²⁴ “선생님, 모세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²⁵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²⁶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차례로 형수와 결혼을 했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²⁷ 맏형의 아내였던 여자가 맨 나중에 죽었습니다. ²⁸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²⁹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 ¶ ¶ 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³⁰ 부활한 뒤에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³¹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³²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 §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³³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막 12:28-34; 눅 10:25-28)

³⁴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³⁵ 그들 가운데 한 율법 선생이 이런 물음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³⁶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³⁷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혼†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 하는 것이다. ³⁸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 그리고 둘째

‡ ‡ 22:19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 ¶ 22:29 성경 구약성경.

§ § 22:32 나는...하나님이다 출 3:6.

* 22:37 마음 일반적으로 ‘지성’ ‘의지’ 를 상징한다.

† 22:37 영혼 일반적으로 ‘정서’ ‘감정’ 을 상징한다.

‡ 22:37 네 마음을...사랑하여라 신 6:5.

계명도 이것과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⁴⁰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담겨 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다

(막 12:35-37; 눅 20:41-44)

⁴¹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물으셨다. ⁴²“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⁴³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⁴⁴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리라.’^{† †}

⁴⁵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냐?” ⁴⁶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하시다

(막 12:38-40; 눅 11:37-52; 20:45-47)

23 예수께서 무리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³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는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는다. ⁴그들은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⁵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성경 주머니^{‡ ‡}를 크게 만들고, 옷에 다는 술을 길게 하여 늘어뜨리고 다닌다. ⁶그들은 잔치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다. ⁷또 그들은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⁸ 그러나 너희는 ‘선생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다. ⁹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¹⁰너희는 ‘선생님’ 이라는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¹¹너희 가운데서 으뜸인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¹²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¹³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늘나라에

¶ 22:39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 22:42 다윗의 자손 구약성경에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고 쓰여 있다.

** 22:43 감화 밖에서 오는 영향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

† † 22:44 시 110:1.

‡ ‡ 23:5 성경 주머니 성경 가운데 중요한 네 권의 책을 담은 작은 가죽 주머니. 어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깊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주머니를 이마와 왼쪽 팔에 달고 다녔다.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14 ¶¶

15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나라 땅을 두루 돌며, 너희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와 같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16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제 앞도 잘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17 너희 눈멀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전이 더 중요하다. 18 또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19 너희는 눈뜯장님들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나 아니면 제단이나? 제단의 제물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제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단이 더 중요하다. 20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1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기르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분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물론 가진 것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실천하여야 했다. 24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너희가 바로 눈뜯장님이다. 자기 잔에 빠진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25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26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눈뜯장님들이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27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하얀 회를 칠한 무덤들과 같다. 이 무덤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 있다. 28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 차 있다.

29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30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

¶¶ 23:14 절 몇몇 그리스어 사본에는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홀어미의 집을 삼키고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는 길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덧붙여 있다.

§ § 23:18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칠 때 쓰기 위해 돌로 만든 탁자 모양의 단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다.

* 23:23 박하, 회향, 근채...드리면서 밭에서 키우는 작은 채소로 음식의 양념으로 쓰인다. 모세의 법에 보면 밭작물과 가축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레 27:30-32; 신 26:12). 이러한 채소들은 바쳐야 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채소들까지 바치는 것이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³¹ 너희는 너희 자신이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³² 그러니 너희 조상이 시작한 죄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³³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³⁴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며, 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³⁵ 그리하여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의인 아벨[†]에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희는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³⁶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의 책임과 벌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다

(눅 13:34-35)

³⁷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는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구나. 내가 몇 번이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더니! 그러나 너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³⁸ 이제 네 집은 텅 비게 될 것이다.³⁹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말할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성전의 파괴

(막 13:1-31; 눅 21:5-33)

24 예수께서 성전을 나서서 얼마쯤 가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께 보시라고 하였다.²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건물들을 잘 보아 두어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건물의 모든 돌이 무너져 내려, 저 돌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³ 그 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쭙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⁵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⁶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⁷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⁸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⁹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치자들에게 넘겨 갖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¹⁰ 그때가 되면 많은

[†] 23:35 아벨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살해당한 사람.

[‡] 23:35 제단 이 제단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곳.

[¶] 23:35 사가랴 히브리어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역대기하로 끝난다.

[§] 23:39 복되시다…분이시여 시 118:26.

^{**} 24:3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여기서 성전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 24:3 세상 글자 그대로의 뜻은 ‘세기’ 또는 ‘때’.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¹¹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¹² 세상은 더욱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¹³ 그러나 끝까지 굳세게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¹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¹⁵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¹⁶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해야 한다. ¹⁷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¹⁸ 들에 있는 사람은 겹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¹⁹ 이런 때 야기 뱀 여자들이나 짓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²⁰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을 당해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²¹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²²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여 주지 않으시면, 살아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²³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²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리려 할 것이다. ²⁵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 두는 것이다.

인자 예수가 다시 올 때

(막 13:24-31; 눅 17:24-37)

²⁶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저기 광야[‡]에 있다!’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리스도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말아라. 또 ‘그리스도가 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²⁷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어디서든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올 것이다. ²⁸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²⁹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³⁰ 그때가 되면 하늘에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온 민족이 슬피 울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 올 것이다. ³¹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세상 곳곳에 보내어, 그가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 **24:11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사람.

[¶] **24:13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24:15 황폐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 단 9:27; 11:31; 12:11을 볼 것.

^{*} **24:24 거짓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닌 사람.

[†] **24:24 기적**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사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한다.

[‡] **24:26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24:29** 사 13:10; 34:4.

³²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워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³³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너희의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라. ³⁴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모든 일은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일어날 것이다. ³⁵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마지막 때를 아신다

(막 13:32-37; 눅 17:26-30, 34-36)

³⁶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 ³⁷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³⁸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있었다. ³⁹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홍수를 만나 휩쓸려 갔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⁴⁰ 그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⁴¹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 둘 것이다.

⁴²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⁴³ 이것을 알아두어라.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⁴⁴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선한 종과 악한 종

(눅 12:41-48)

⁴⁵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며,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믿을 만한 종이겠느냐? ⁴⁶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는 종이 아니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⁴⁷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⁴⁸ 그러나 그 종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우리 주인이 오래 떠나 계시네.’ 라고 생각하고, ⁴⁹ 자기가 맡은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것이다. ⁵⁰ 그러면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돌아와서 그의 모든 행실을 보게 될 것이다. ⁵¹ 주인은 그 종을 때리고, 위선자들이 벌 받는 곳으로 내쫓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열 처녀 이야기

25 그때에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들은 등을 들고 나갔다. ² 그 가운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³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들고 갔으나, 기름 향아리는 들고 가지 않았다. 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가지고 가고, 기름을 담은 향아리도 들고 갔다. ⁵ 늦도록 기다렸으나 신랑은 오지 않고 처녀들은 모두 지쳐서 졸다가 잠이 들었다.

⁶ 그런데 밤이 깊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신랑이 오신다! 모두들 나가서 그분을 맞아라!’

⁷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 제각기 등불을 준비했다. ⁸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가 갖고 있는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하고 말하였다.

⁹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안 되겠어! 너희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또 너희에게도 모두 모자랄지 몰라. 그러니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사는 게 좋겠다.’

10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11 그 뒤에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왔다. 이 처녀들은 ‘주님, 주님, 문 좀 열어 주세요.’ 하고 애원하였다.

12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였다.

13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 종의 비유

(눅 19:11-27)

14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기에 앞서, 종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일켰다. 15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첫째 종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둘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셋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길을 떠났다. 16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은 서둘러 돈을 불리러 갔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로 늘어났다. 17 두 달란트를 맡은 종도 첫째 종과 똑같이 하였다. 그가 맡은 두 달란트가 이제 네 달란트로 늘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를 맡은 셋째 종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에 묻었다.

19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먼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기가 따로 모은 다섯 달란트를 함께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1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22 그 다음 두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3 주인이 대답하였다. ‘잘했다. 너는 믿을 만한 착한 종이구나. 너는 작은 일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너에게 훨씬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24 그리고 나서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아주 엄한 분이십니다. 어른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십니다. 25 저는 그 돈을 잃지나 않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어른의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어른께서 주신 한 달란트입니다.’

26 주인이 대답하였다.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은다고 말하였다. 27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을 다시 찾고 또 내 돈에서 불어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28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쓰는 사람은 더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모두 빼앗길 것이다. 30 이 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자이다. 그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둘러싸여서 천사들과 더불어 올 때에, 그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 25:15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는 일꾼 한 사람의 15년 품삯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가르듯이, 그들을 두 무리로 갈라놓을 것이다. ³³ 그는 양들은 자기의 오른쪽으로 염소들은 왼쪽으로 세울 것이다.

³⁴ 그때에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오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 나라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하여 둔 것이다. ³⁵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너희 집으로 초대하였다. ³⁶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에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³⁷ 그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³⁸ 언제 주께서 집을 떠나 홀로 계신 것을 보고 저희 집으로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주께서 입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³⁹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주를 찾아보았습니까?’

⁴⁰ 임금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내게 베푸는 것이다.’

⁴¹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악마와 그 쫓개들을 가두려고 마련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⁴²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⁴³ 너희는 내가 집을 떠나 홀로 있을 때에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하지 않았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아플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⁴⁴ 그때에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집을 떠나 홀로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께서 입을 것이 없거나 병들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⁴⁵ 그때에 임금이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⁴⁶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다

(막 14:1-2; 눅 22:1-2; 요 11:45-53)

26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날 사람의 아들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³ 그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다. ⁴ 그들은 예수를 잡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꾸미기로 하였다. ⁵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지 맙시다.”

**25:40 형제자매 글자 그대로는 ‘형제들’.

††26:3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어떤 여자가 예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다

(막 14:3-9; 요 12:1-8)

6 그때에 예수께서는 베다니^{‡ ‡}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7 예수께서 거기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께 왔다. 이 여자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 ¶}을 가지고 왔다. 예수께서 음식을 잡숫고 계실 때 이 여자는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자에게 화를 냈다. 제자들이 여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향유를 그렇게 낭비합니까? 9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10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나무라느냐? 이 여자는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나는 너희 곁에 언제나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해 준 것이다. 13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에게 전해질 터인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그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다

(막 14:10-11; 눅 22:3-6)

14 그때에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 15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소. 그러면 당신들은 그 대가로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개를 주었다.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적당한 때를 엿보았다.

사도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다

(막 14:12-21; 눅 22:7-14, 21-23; 요 13:21-30)

17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1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 하십니다.’”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20 저녁때가 되어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상에 앉으셨다. 21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22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분명히 저는 아니지요?” 하고 여쭙었다.

2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25 그때에 예수를 넘겨줄 유다가 말하였다. “선생님, 틀림없이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 너다.”

‡ ‡ 26:6 베다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을.

¶ ¶ 26:7 옥합 옥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작은 그릇.

§ § 26:11 가난한...것이다 신 15:11.

주의 마지막 저녁식사

(막 14:22-26; 눅 22:15-20; 고전 11:23-25)

26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다.”

27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가 흘리는 새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로 빚은 술은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제자들은 유월절 노래를 부른 뒤에, 올리브 산*으로 갔다.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다

(막 14:27-31; 눅 22:31-34; 요 13:36-38)

3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모두 흩어지리라.’‡

32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33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35 베드로가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

(막 14:32-42; 눅 22:39-46)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하시고는,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큰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셨다. 38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39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0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41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42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고통의 잔이 거두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 26:30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 26:31 성경 구약성경.

‡ 26:31 슥 13:7.

¶ 26:32 갈릴리 유대의 북쪽 지역.

43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 눈을 뜰 수도 없었다. 44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가서서 기도 드렸다. 세 번째도 같은 말씀으로 기도 드렸다.

4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가까이 왔다. 46 일어나서 같이 가자. 나를 배반할 자가 여기 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잡히시다

(막 14:43-50; 눅 22:47-53; 요 18:3-12)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몰려왔다. 48 유다**는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알려 주었다.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것이니,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시오.” 49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는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하려고 한 일이나 어서 하여라.”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52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에 열두 사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 주시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55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나?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혼자 두고 달아났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신 예수

(막 14:53-65;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57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마당까지 따라 들어가, 종들 곁에 앉았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었다.

59 높은 제사장들과 유대 의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들을 찾으려 애썼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해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예수를 죽일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그 때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61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 26:47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

**26:48 유다 글자 그대로는 ‘그분을 배신한 자’.

†† 26:51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26:53 사단 글자 그대로는 ‘레기온’.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한 사단.

¶¶ 26:57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 26:61 이 사람 곧 예수. 그분의 적들은 그분의 이름을 직접 말하기를 꺼려하였다.

62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할 말이 없소? 그대를 고발하여 증언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오?”⁶³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진실을 말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6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하는 대로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오.”

65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쥐어뜯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셨습니다.⁶⁶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67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68 그들은 “당신이 예언자 그리스도라면, 당신을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시오.”라고 놀렸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막 14:66-72; 눅 22:56-62; 요 18:15-18, 25-27)

69 그대에 베드로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70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며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71 베드로가 대문개로 나가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72 이번에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73 조금 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오.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

74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75 그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시다

(막 15:1; 눅 23:1-2; 요 18:28-32)

27 새벽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2 그들은 예수를 묶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

(행 1:18-19)

3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돈 서른 개를 다시 돌려주었다. 4 그러고는 “내가 죄를 지었소. 나는 당신들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그것은 당신 책임이오.” 라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26:65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6 제사장들은 성전에 떨어진 은돈을 주워 들고, “이 돈은 사람을 죽게 한 피 값이요. 성전의 헌금 궤에 넣을 수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7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발’이라 불리는 땅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8 그래서 이 땅을 아직도 ‘피의 발’이라고 부른다. 9 이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목숨 값으로 준 돈으로, 10 토기장이의 땅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이다.” †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다

(막 15:2-5; 눅 23:3-5; 요 18:33-38)

11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12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계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이 증언이 들리지 않소?”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말에 한 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 주려 하나 실패하다

(막 15:6-15; 눅 23:13-25; 요 18:39-19:16)

15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그때에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라바 ‡ 였다. 17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는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18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쪽지를 보내왔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의 일에 얽혀 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20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라바는 풀어 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21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소.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22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23 빌라도가 물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 ¶ 그리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소. 그의 죽음은 당신들의 책임이요!”

25 사람들이 모두 대답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 27:10 그들은...그대로이다 속 11:12-13; 렘 32:6-9을 볼 것.

‡ 27:16 바라바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 라고 되어 있다.

¶ 27:24 손을 씻었다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손을 씻었다.

26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 주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넘겼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예수를 놀리다

(막 15:16-20; 요 19:2-3)

27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모두 예수의 둘레에 모여 섰다. 28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예수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다. 군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놀렸다. 30 군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예수의 손에서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그들은 예수를 놀리고 나서, 예수께 입혔던 주홍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막 15:21-32; 눅 23:26-39; 요 19:17-19)

32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렀다. (골고다는 ‘해골터’ 라는 뜻이다.) 34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가질 사람을 정하였다. 36 군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를 지켜보았다. 37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예수의 죄목을 적은 판을 달았다. 그 판에는 ‘유대 사람의 왕 예수’ 라고 쓰여 있었다. 38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왼쪽에 못 박혔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40 “너는 성전을 헐어 내린 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목숨을 구해 보아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하였다.

41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놀렸다. 42 “그가 다른 사람은 구했으면서, 막상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시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그를 믿을 터인데!” 43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지 않겠는가!”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막 15:33-41; 눅 23:44-49; 요 19:28-30)

45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어둠은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47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 27:34 쓸개즙을 탄 포도주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포도주에 약을 섞은 것으로 보인다.

** 27:46 나의...버리셨습니까 시 22:1.

†† 27:47 그가...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이’ 또는 ‘엘리’가 사람들에게는 ‘엘리아’라는 이름처럼 들렸던 것 같다.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48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서 갓솜[‡]을 신 포도주에 푼 적셔서 막대기에 묶어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가 보자.”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

51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깨어졌다. 52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 53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55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시종을 들며 여기까지 따라온 여자들이었다. 56 막달라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예수께서 묻히시다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57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마을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58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가져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주검을 요셉에게 내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59 요셉은 예수의 주검을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베로 쌌다. 60 요셉은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주검을 모셨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굴려 무덤 어귀를 막고 돌아갔다. 61 그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

62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다음 날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63 말하였다. “총독 각하, 그 거짓말쟁이는 살아 있을 때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지날 때까지 무덤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주검을 훔쳐 가고,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덤을 잘 지키시오.” 66 그들은 물러가서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에 도장을 찍어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 27:48 갓솜 해면 또는 스폰지.

¶ 27:50 숨을 거두셨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영혼을 떠나 보내셨다’.

§ 27:51 성전의 휘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성전의 다른 부분을 갈라 놓는 휘장.

* 27:54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27:56 야고보와 요한의 글자 그대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 27:57 아리마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다.

¶ 27:62 준비하는 날 안식일 전 날, 곧 금요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소식

(막 16:1-8; 눅 24:1-12; 요 20:1-10)

28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² 그때에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³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을 잃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⁵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⁶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주검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⁷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 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⁸ 여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⁹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들 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¹⁰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⁵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리다

¹¹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¹²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¹³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 예수의 주검을 훔쳐 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¹⁴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 주겠다.” ¹⁵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막 16:14-18;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¹⁶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산으로 갔다. ¹⁷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를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¹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¹⁹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²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⁵ 28:10 나를 따르던 사람들 글자 그대로는 ‘내 형제들’.